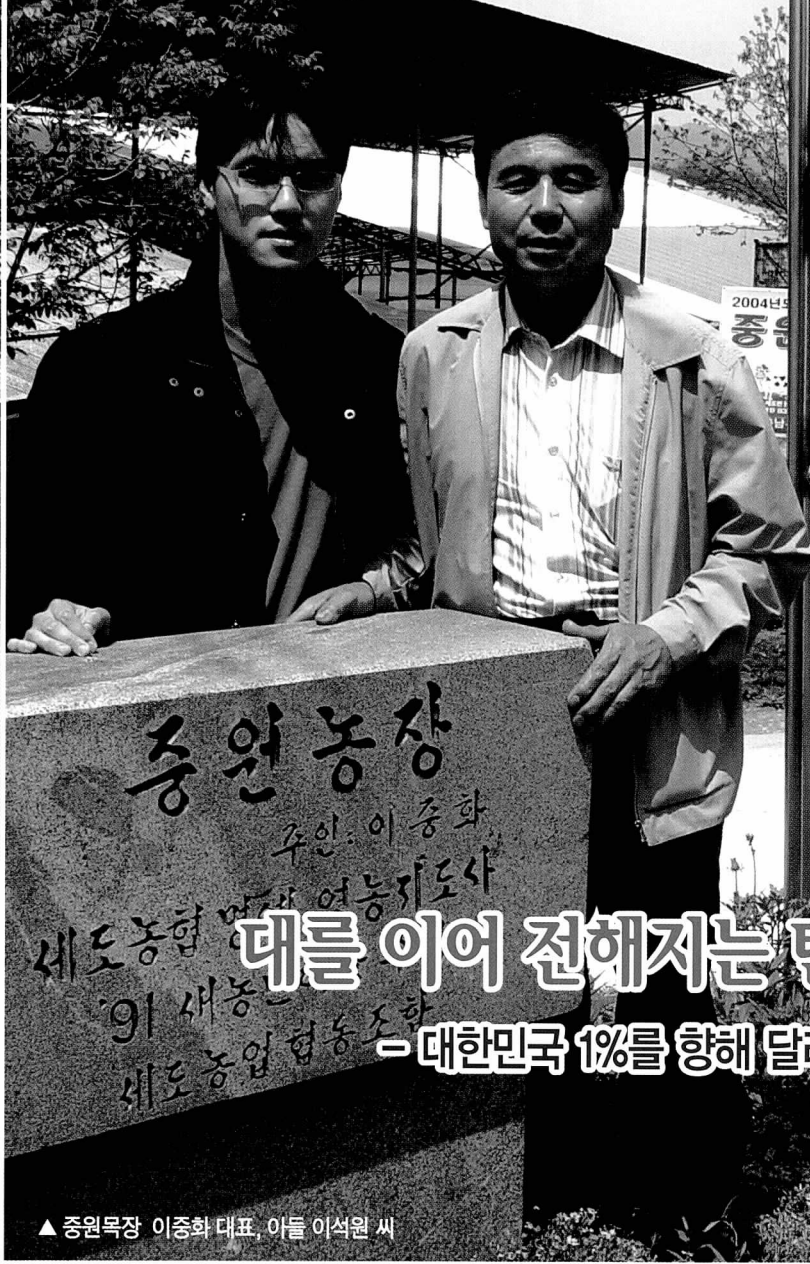




(주)바이오사료연구소가 추천한 중원목장



중원농장

주인 이중화

세도농협 영농지도사

91 새농협 영농지도사

세도농협 협동조합

# 대를 이어 전해지는 탄탄한 목장경영

## — 대한민국 1%를 향해 달리는 충남 부여 중원목장

▲ 중원목장 이중화 대표, 아들 이석원 씨

기획: 최재현 | 촬영: 현시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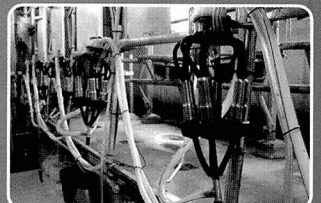
▲ 중원목장 고능력우



▲ (왼쪽부터)이중화 대표, 진안수 과장, 아들 이석원씨



▲ 우사별로 팻말을 달아 표시



▲ 이중화 대표가 직접 설계한 착유시설



## 2등농장 NO! 1등농장 OK!

충남 부여군 세도면에 자리잡고 있는 중원목장(대표:이중화)은 총두수 130두에 일평균유량은 34kg으로 착유우 41두, 건유우 7두, 임신우 7두로 나머지는 모두 비육을 하고 있다.

체세포수는 10만~14만으로 1등급이고, 유지방은 4.5정도로 낙농진흥회로 리터당 750원의 단가로 납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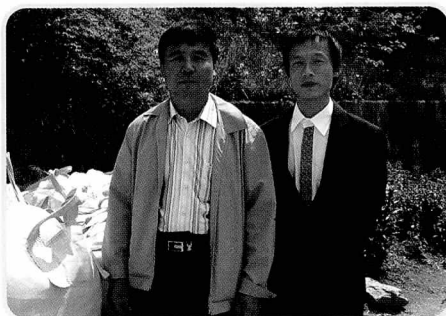
이중화 대표는 낙농은 어려서부터의 꿈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낙농으로 시작하지는 않았다. 아내와 함께 10년은 시설원예를 하고 10년은 젓소를 키우겠다는 20년 계획을 세웠다고 한다. 78년부터 88년까지 시설원예를 했고, 83년도부터 송아지 세 마리를 사육하면서 훗날 목장경영을 위한 대비를 했다고 한다. 88년 시설원예를 접을 때쯤엔 18마리

로 늘어나 이곳에 정착하고 본격적으로 목장을 시작했다. 당시 이중화 대표는 '2등농사는 안 짓겠다, 1등농사를 하겠다'는 신조를 가지고, 시설원예를 하면서 축적한 많은 기술을 접목시켜 농장경영을 했고, 그 토대가 현재 축산환경의 밑바탕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대표의 이러한 선진 경영방식으로 91년에는 대통령 훈장을 받았다. 집 안의 온갖 트로피와 표창장들이 그동안의 농업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었다.

이중화 대표는 이만큼 농장을 일구면서 혼자만 잘살려는 생각은 하지 않았고 같이 더불어

잘 살기위한 농업을 하기 위해 항상 고민했다고 한다. 이 대표의 집안에는 그 동안 차곡차곡 모아온 축산전문지들이 많이 있었다. 전문지들을 모아온 이유는 그것을 토대로 공부를 했고 과거의 축산동향도 파악 할 수 있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이 대표는 전국 새 농민회 부회장직을 맡고 있다. 농협중앙회에서 농업, 농촌에 대해 애정을 가지고 노력을 아끼지 않는 1차농업 종사자들에게 표창장을 주고 있고, 표창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전국 새 농민회이다. 새 농민회 회원들은 정기적인 만남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에 타결된 한·미 FTA로 인한 타격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까 함께 고민하고, 기술이 좋은 농가에서 다른 농가에 도움을 주는 등 기술전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또한 이 대



▲ 이중화 대표와 바이오사료연구소 진안수 과장

표는 정기적으로 해외에 나가 선진농업을 보고, 듣고 몸으로 체험하고 있다. 이스라엘 같은 사막이 있는 나라에서도 TMR 사양으로 우유 생산량 세계 1위를 하고 있다는 예를 들면서 지금의 어려운 농업실정에 대해 안된다 안된다 탓만 할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기회로 높이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축산농가가 이 대표와 같은 생각으로 농장경영을 한다면 어떨까? 선진농업국으로 가는 길이 좀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 대표는 현재 사료값을 내지 못해서 찢찢매는 농가들이 많고 한다. 같이 동행한 바이오사

료연구소의 송영학 부장은 증원목장 같은 경우는 사료값도 선입금을 해 준다고 덧붙인다. 어 시간한 흑자 경영이 아니고서야 있을수 없는일.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말이 있듯이 현재는 이중화 대표의 아들 이석원씨가 아버지의 목장을 이어받기 위해 농장경영수업을 받고 있다. 이중화 대표는 목장설계를 할 당시에 시기는 정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아들에게 물려줄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자녀가 한다고 나서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석원씨는 누구보다 열정을 가지고 농장일을 배우고 있다.

### 기록은 필수, 내 것이라는 애착은 성공의 지름길

이석원씨는 우사 앞에 큰 개체관리 현황표로 소의 수정과 분만예정일을 기록해 놓고 있었다. 이러한 개체관리는 농가의 기본적인 일이라고 하지만 실천하고 있는 농가는 드문 형편이다. 또한 우사마다 육성비육, 번식우 등으로 팻말을 붙여놔 처음 방문하는 사람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작은 배려도 잊지 않았다.

이 대표는 밤11시와 4시에 일어나 우사를 살핀다. 소의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으려는 이 대표의 노력이 엿보이는 부분이다. 이 대표는 농장성적이 좋지 못한 농장주들이 조금이라도 농장에 애착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경영한다면 부실경영에 시달리는 농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우사청결에도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소

가 잠자리가 불편하고 청결하지 않으면 성격이 난폭해지고 유량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보기에도 깔끔해 보이는 각 우사마다 보송보송한 톱밥이 깔려있어 위생적이었다. 같이 동행한 바이오 사료연구소의 진안수 과장은 사료를 공급한지 8개월정도 되었는데 처음엔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컨설팅을 해주었지만 지금은 이 대표의 꼼꼼한 경영으로 다른 농장에 비해 신경이 덜 쓰이는 곳이라고 말하며 아무리 컨설팅을 잘해 주어도 농장주가 농장경영에 적극적이지 않다면 높은 성적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한다. 이 대표 또한 나이에 비해 성실하고 열심히 하는 진과장을 보면서 아들 이석원씨가 배울점이 많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업체의 컨설팅과 서로에 대한 믿음이 지금의 성적을 내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젖 소 개 체 관 리 현 황**

NO	분만월일	수정일	정액분	번	비	NO	분만월일	수정일	정액분	번	비
날짜	날짜	번호	번호	번호	비고	날짜	날짜	번호	번호	번호	비고
271	1.13	2016	3.27	3.26	안	272	1.18	2016	3.27	3.26	안
273	1.13	2016	3.27	3.26	안	274	1.18	2016	3.27	3.26	안
275	1.13	2016	3.27	3.26	안	276	1.18	2016	3.27	3.26	안
277	1.13	2016	3.27	3.26	안	278	1.18	2016	3.27	3.26	안
279	1.13	2016	3.27	3.26	안	280	1.18	2016	3.27	3.26	안
281	1.13	2016	3.27	3.26	안	282	1.18	2016	3.27	3.26	안
283	1.13	2016	3.27	3.26	안	284	1.18	2016	3.27	3.26	안
285	1.13	2016	3.27	3.26	안	286	1.18	2016	3.27	3.26	안
287	1.13	2016	3.27	3.26	안	288	1.18	2016	3.27	3.26	안
289	1.13	2016	3.27	3.26	안	290	1.18	2016	3.27	3.26	안
291	1.13	2016	3.27	3.26	안	292	1.18	2016	3.27	3.26	안
293	1.13	2016	3.27	3.26	안	294	1.18	2016	3.27	3.26	안
295	1.13	2016	3.27	3.26	안	296	1.18	2016	3.27	3.26	안
297	1.13	2016	3.27	3.26	안	298	1.18	2016	3.27	3.26	안
299	1.13	2016	3.27	3.26	안	300	1.18	2016	3.27	3.26	안
301	1.13	2016	3.27	3.26	안	302	1.18	2016	3.27	3.26	안
303	1.13	2016	3.27	3.26	안	304	1.18	2016	3.27	3.26	안
305	1.13	2016	3.27	3.26	안	306	1.18	2016	3.27	3.26	안
307	1.13	2016	3.27	3.26	안	308	1.18	2016	3.27	3.26	안
309	1.13	2016	3.27	3.26	안	310	1.18	2016	3.27	3.26	안
311	1.13	2016	3.27	3.26	안	312	1.18	2016	3.27	3.26	안
313	1.13	2016	3.27	3.26	안	314	1.18	2016	3.27	3.26	안
315	1.13	2016	3.27	3.26	안	316	1.18	2016	3.27	3.26	안
317	1.13	2016	3.27	3.26	안	318	1.18	2016	3.27	3.26	안
319	1.13	2016	3.27	3.26	안	320	1.18	2016	3.27	3.26	안
321	1.13	2016	3.27	3.26	안	322	1.18	2016	3.27	3.26	안
323	1.13	2016	3.27	3.26	안	324	1.18	2016	3.27	3.26	안
325	1.13	2016	3.27	3.26	안	326	1.18	2016	3.27	3.26	안
327	1.13	2016	3.27	3.26	안	328	1.18	2016	3.27	3.26	안
329	1.13	2016	3.27	3.26	안	330	1.18	2016	3.27	3.26	안
331	1.13	2016	3.27	3.26	안	332	1.18	2016	3.27	3.26	안
333	1.13	2016	3.27	3.26	안	334	1.18	2016	3.27	3.26	안
335	1.13	2016	3.27	3.26	안	336	1.18	2016	3.27	3.26	안
337	1.13	2016	3.27	3.26	안	338	1.18	2016	3.27	3.26	안
339	1.13	2016	3.27	3.26	안	340	1.18	2016	3.27	3.26	안
341	1.13	2016	3.27	3.26	안	342	1.18	2016	3.27	3.26	안
343	1.13	2016	3.27	3.26	안	344	1.18	2016	3.27	3.26	안
345	1.13	2016	3.27	3.26	안	346	1.18	2016	3.27	3.26	안
347	1.13	2016	3.27	3.26	안	348	1.18	2016	3.27	3.26	안
349	1.13	2016	3.27	3.26	안	350	1.18	2016	3.27	3.26	안
351	1.13	2016	3.27	3.26	안	352	1.18	2016	3.27	3.26	안
353	1.13	2016	3.27	3.26	안	354	1.18	2016	3.27	3.26	안
355	1.13	2016	3.27	3.26	안	356	1.18	2016	3.27	3.26	안
357	1.13	2016	3.27	3.26	안	358	1.18	2016	3.27	3.26	안
359	1.13	2016	3.27	3.26	안	360	1.18	2016	3.27	3.26	안
361	1.13	2016	3.27	3.26	안	362	1.18	2016	3.27	3.26	안
363	1.13	2016	3.27	3.26	안	364	1.18	2016	3.27	3.26	안
365	1.13	2016	3.27	3.26	안	366	1.18	2016	3.27	3.26	안
367	1.13	2016	3.27	3.26	안	368	1.18	2016	3.27	3.26	안
369	1.13	2016	3.27	3.26	안	370	1.18	2016	3.27	3.26	안
371	1.13	2016	3.27	3.26	안	372	1.18	2016	3.27	3.26	안
373	1.13	2016	3.27	3.26	안	374	1.18	2016	3.27	3.26	안
375	1.13	2016	3.27	3.26	안	376	1.18	2016	3.27	3.26	안
377	1.13	2016	3.27	3.26	안	378	1.18	2016	3.27	3.26	안
379	1.13	2016	3.27	3.26	안	380	1.18	2016	3.27	3.26	안
381	1.13	2016	3.27	3.26	안	382	1.18	2016	3.27	3.26	안
383	1.13	2016	3.27	3.26	안	384	1.18	2016	3.27	3.26	안
385	1.13	2016	3.27	3.26	안	386	1.18	2016	3.27	3.26	안
387	1.13	2016	3.27	3.26	안	388	1.18	2016	3.27	3.26	안
389	1.13	2016	3.27	3.26	안	390	1.18	2016	3.27	3.26	안
391	1.13	2016	3.27	3.26	안	392	1.18	2016	3.27	3.26	안
393	1.13	2016	3.27	3.26	안	394	1.18	2016	3.27	3.26	안
395	1.13	2016	3.27	3.26	안	396	1.18	2016	3.27	3.26	안
397	1.13	2016	3.27	3.26	안	398	1.18	2016	3.27	3.26	안
399	1.13	2016	3.27	3.26	안	400	1.18	2016	3.27	3.26	안

▲ 꼼꼼한 개체관리를 하는 증원목장

중원목장의 여러 가지 특징 중 하나는 공태일수가 다른 농장에 비해 짧다는 점이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130~140일정도 되면 번식성적이 양호하다고 보는데 증원목장은 공태일수가 110일정도라고 한다. 도태비율이 없으면서 번식률까지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대표가 직접 자가수정을 하기 때문이라는 진안수 과장의 설명이 이어진다. 이 대표가 직접 자궁에 손을 넣어 소의 상태를 파악하고 발정이 오면 바로 수정을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던 것이다. 지금은 전문가 수준의 수정실력을 가지고 있지만 처음에는 시행착오



가 많았다는 이중화 대표는 직접 축협우유개량사업소에서 수정사 교육과정을 수료했다. 하지만 수료 후에도 부족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수태율이 어떻게 하면 잘 되는지 전문가들을 만나 자문을 구하고 배우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에도 시련은 있었다. 바로 목장에서 흔히 발생하는 부루셀라 때문.

2000년도에 갑자기 여러 마리가 임신 5~6개월령에 유산을 했다고. 바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던 황우석 박사에게 문의를 했고 검사를 한 결과 양성 반응을 보이는 6마리를 발견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그 당시 쿼터량이 많이 줄었고 힘들었던 시기라고 회상했다. 그 후 우사소독을 더 철저히 하고 외부에서 소를 구입하지 않았다고 한다. 지금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다.

이 대표는 이어 송아지 세 마리로 시작해서 부채없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끝없는 연구와 전문가들과의 교류에 의한 노하우가 접목되었기 때문이라며 그로 인해 농장성적을 보다 빨리 진전 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조사료생산을 위한 사료포 확보

중원목장은 현재 8개월 가량 바이오 사료 연구소의 TMR 사료와 조사료를 함께 급여하고 있다. 연암축산대학 TMR 강좌에서 바이오사료연구소 김광수 박사의 강의를 듣고 현 시대에 맞는, 이해하기 쉬운 교육내용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결정적으로 충북 보은지역 양병철 사장 농가에서 바이오사료연구소의 TMR사



▲ 이중화 대표가 받은 수 많은 표창장



▲ 1만여평의 대지에 사료포를 확보

료를 급여하는 것을 보고 바이오사료연구소의 사료를 사용하게 되었다고 한다. TMR사료와 함께 직접 재배하는 조사료를 급여하고 있는데 조사료 생산을 위해 1만여평의 부지에 옥수수를 재배하여 직접 엔실리지를 만들고 있었다. 농가에서 실제로 직접 엔실리지를 담가 급여하는 곳은 많지 않은데 축사부지 근처로 다량의 사료포를 확보해 놓고 자급하는 모습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었다. 사료는 보통 바이오사료의 농후사료 20kg, 옥수수사일리지 6kg, 발효건초 1kg과 생균제 1kg을 급여하고 있다고 한다. 이중화 사장은 축사 앞에 쌓아놓은 건초를 가리키며 “이 건초는 알팔파와 베일 7, 티모시 3의 비율로 배합한 것을 쪼소들이 자유채식 할 수 있도록 수시로 주고 있어요.” 라고 말했다. 각종 발효사료와 충분한 조사료의 공급으로 위내 미생물활동이 활발해져 소화율이 향상되고 유량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결과. 이중화 사장과 아들 이석원씨의 정성과 부지런함으로 좋은 성적을 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100년을 내다보고 더 멀리, 더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갈 중원목장. 앞으로 대한민국 선진목장경영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취재를 마치고 농장을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다. ⑤